

본 문제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Ⅱ)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

성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OMR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답안지의 수험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불가)
-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지우개,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불필요한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체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게 사라질 사물들을 맹목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고 순화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한다. 예술은 자기 고유의 형식으로 사물에서 영혼에 이르는 말을 주고받는 언어요, 또한 영혼이 이런 형식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나날의 양식이다. (……) 예술가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교화하여 자신의 고유한 영혼에 침잠해, 이 고유한 영혼을 우선 가다듬고 배양해야 한다. (……) 예술가는 자기의 행동, 감정, 생각 등 모든 것이 섬세하며 만질 수 없으나 확고한 작품의 소재를 형성하며 여기에서 자신의 작품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술가를 ‘미’의 사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미는 내면적 가치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다.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예술의 평가, 즉 예술이 주는 마음의 평가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인간의 이해에 의존한다. 인생의 의의가 자기를 동물성에서 해방하는 데 있다면, 정신을 높여주고 육체를 낮추게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예술이 좋은 예술일 것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 작품에서 예술적 인상을 받는 모든 사람 사이에 일종의 교류를 갖게 한다. 예술은 개인과 인류의 생활 및 행복을 위한 발걸음에 없어서는 안 될 인간 상호 간의 교류 수단이요, 모든 사람을 동일한 감정으로 통일하는 수단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세한도>는 당대의 통유* 추사(秋史) 김정희가 1844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의 제자 우선(藕船) 이상적*이 자신을 대하는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려 보낸 작품이다. 추사는 그림 왼편에 화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엄정하고도 칼칼한 해서체로 작품을 그리게 된 연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다. 소나무, 잣나무는 본래 사계절이 없이 잎이 지지 않는 것이다.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도 같은 소나무, 잣나무요, 추위가 닥친 후에도 여전히 같은 소나무, 잣나무다. 그런데도 성인(공자)께서는 굳이 추위가 닥친 다음의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하는 처신을 돌이켜보면, 그 전이라고 더 잘한 것도 없지만, 그 후라고 전만큼 못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예전의 그대에 대해서는 따로 일컬을 것이 없지만, 그 후에 그대가 보여준 태도는 역시 성인에게서도 일컬음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닌가? 성인이 특히 추운 계절의 소나무, 잣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다만 시들지 않는 나무의 굳센 정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역시 추운 계절이라는 그 시절에 대하여 따로 마음에 느끼신 점이 있었던 것이다.

(……) <세한도>에는 염량세대*의 모진 차가움이 있다. 쓸쓸한 화면엔 여백이 많아 겨울바람만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허름한 집 한 채와 나무 네 그루뿐이다. 옛적 추사 문전에 버글거렸을 못 사람들의 모습은커녕 인적마저 찾을 수 없다. (……) 집 왼편 약간 떨어진 곳에 선 두 그루의 잣나무는 줄기가 곧고 가지들도 하나같이 위쪽으로 팔을 쳐들고 있다. 이 나무들의 수직적인 상승감은 그 이파리까지 모두 짧은 수직선 형태를 하고 있어서 더욱 강조된다. 김정희는 이 나무들에서 희망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앞서 보았듯이 <세한도>에는 절해고도 황량한 유배지의 고독과, 이를 이겨 내면서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에 매진하는 추사의 의지와, 변치 않는 옛 제자의 고마운 정이 있었다. 그리하여 여기서 추사는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앞날의 희망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한도>란 결국 석 자 종이 위에 몇 번의 마른 붓질이 쓸고 지나간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세상의 매운 인정과 그로 인한 쓸쓸함, 고독, 선비의 굳센 의지, 옛 사람의 고마운 정, 그리고 끝으로 허망한 바람에 이르기까지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세한도>를 문인화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통유(通儒)** : 세상사에 통달하고 실행력이 있는 유학자.

***이상적(李尙迪, 1804~1865)** : 조선말기의 서예가·문인.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중국 청나라를 열두 번이나 드나들며 명사들과 교류하여 서화, 골동품, 떡과 연적, 금석 따위를 가져왔다.

***염량세대(炎凉世態)** :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으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제1] 【가】의 '사물들'을 【다】에서 찾아 적고, 【가】에서 작가가 의도한 '내면적 가치'와 【나】의 '인간 상호 간의 교류'가 무엇인지를 【다】를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2 ~ 14줄 (360 ~ 42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가부장제는 성별 분업을 통해 여성을 차별해 왔다. 남성은 직장 노동을, 여성은 가사 노동을 담당하도록 강요하면서 여성의 몫으로 주어진 가사 노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 온 것이다. 또 직업 구조 안에서도 남성은 주로 지배적·주도적인 일을 하고 여성은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식의 차별적인 분업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남성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취급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인간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생산 및 교환 방식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 생산 활동에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작업 방식으로 분업을 꼽을 수 있다. 분업이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각기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생산 방식을 말한다. (……) 혼자 사는 자급자족 경제가 아닌 이상,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혼자 다 생산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매한다.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집중시키는 것을 가리켜 ‘특화’ 또는 ‘전문화’라고 한다.

- 『고등학교 경제』

【다】 공리주의에 따르는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공리주의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비용과 이익을 평가한 후, 비용과 대비해 최대의 이익을 산출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화학 공장을 주택가 근처에 세우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가스를 방출하겠지만,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낼 것이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는 이 공장이 설립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한 후, 두 가지 대안 중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하는 안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그 나라 경제 규모와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의 경제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이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산물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 활동,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생산물의 가치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국내 총생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 복지 후생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것은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제 활동이지만 환경오염 그 자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셋째, 국내 총생산의 크기만 가지고는 소득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알 수 없다. 즉,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 전체 소득의 총량만 보여주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을 알려 주지 못한다.

- 『고등학교 경제』

[문제2] 【가】는 성별 분업에 따른 차별을 설명하고 있다. 【나】와 【다】 각각에서 '여성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추론하여 기술한 다음, 이 합리화 논리를 【라】의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비판하시오.

<12~14줄 (360~42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은 달성될 수 없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 부정의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은 공동선이나 타인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공적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덕스러운 시민들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적 유대가 강할수록 사회 정의의 요구도 증대되고 그와 더불어 부정의의 기준도 엄격해진다. 진정한 우정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시민들은 공동체적 유대가 강하다고 해서 집단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우정의 덕은 스스로의 부도덕함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부도덕함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인간은 자신이 공유하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 옳다. (……) 인간에게는 사회성이라는 본성이 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자연적 특성으로부터 절도, 비방, 거짓말, 집단 따돌림 등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들은 사회적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우려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라】 발우 공양이란 평상시 승려들이 식사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발우란 승려의 밥그릇을 지칭한다. 행자가 맑은 물을 돌리면 큰 그릇에 물을 받아 국그릇과 찬그릇을 행구고 청숫물 그릇에 다시 담는다. 밥과 국은 각각 먹을 만큼만 담아, 남거나 모자라지 않게 한다. 공양이 끝나면 밥그릇과 국그릇, 찬그릇을 깨끗이 닦아 원래대로 쌓아둔다. 그래서 발우 공양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수질오염을 막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옥의 아귀 중생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적극적 생명관을 기반으로 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마】 어느 마을 산 중턱 공원으로 가는 길가에 집이 있다. 여름이라 날이 더워지면 서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 공원에 간다. 그러다 보니 공원으로 가는 길이 어두워 다칠 위험성도 높고, 무섭기도 하다는 불평이 많아졌다. 그래서 주민들은 돈을 모아 가로등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가로등을 설치할 곳이 산 중턱 입구에 있는 집 바로 앞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집 옆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가로등 두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주로 밤에 일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 공원에 가는 일이 없다. 게다가 집 옆에 환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지금도 골칫덩어리인 모기와 벌레들이 집안에 가득히 들끓을 수 있어서 문제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바】 소를 키워 생계를 꾸려 나가던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에게 풀을 먹일 때 뒷동산에 있는 목초지를 이용했다. 목초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였다. 마을 사람들은 목초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소의 수를 늘려나갔다. 그 결과 소들이 먹는 풀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풀이 무성하던 목초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사라져 가더니 결국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너무 많은 소를 목초지에 방목한 나머지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문제3] 【가】,【나】,【다】,【라】에 공통된 도덕적 선(善)이 무엇인지 제시문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와 【바】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각각 2가지씩 제시하시오.

<20 ~ 22줄 (600 ~ 660자)> [40점]